

믿음, 수행, 깨침의 세계

| 월인 |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은 먼저 일원론—元論, 다음으로 이원론二元論, 마지막에 불이론不二論의 영역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信者)은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일원론—元論의 영역 속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수행에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도달해야 할 곳'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치고 나면 '중생이 부처가 됐구나'가 아니라 '중생과 부처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론不二論입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所言義者, 則有三種. 云何爲三.
소언의자 즉유삼종 운하위삼

의義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一者體大, 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故.
일자체대 위일체법진여평등불증감고

첫째는 체大體大로 그 본체가 크니, 일체의 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는다.

체大體大는 우리 몸으로 보자면 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체體입니다. 몸으로 치자면 몸짓이 아닌 몸 자체, 물로 치자면 증감이 없는 물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본체가 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일체의 현상은 진여로서 평등하고 증감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현상은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닷물은 한 치도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며 땅으로 스며들어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만, 그 전체는 평등하며 결코 증감이 없어요. 일체의 법法이라는 것은 마음이 경험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여로서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들도 진여와 다름없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절대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인 마음은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나’가 있고 ‘너’가 있는 ‘이분법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대상이 없는 세계에 누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절대絕對는 상대相對가 없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는 절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마음입니다. 상대적인 마음은 회로 속을 운행하며 어떤 작용을 하는 전기電氣이고, 절대적인 마음은 그 회로를 벗어난 전기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가 회로 속을 운행하면서 컴퓨터 자판의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를 내고, 동영상을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생성되는 많은 것이 상대적인 세계,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의 세계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마음은 회로를 통과하는 전기이고, 절대적인 마음은 전기 자체입니다. 그런데 회로가 없는 곳에서 전기는 표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회로 속 전기도 분명히 전기 자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로 속 전기와 같은 상대적인 마음이 진정한 본성인 진여眞如가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회로回路라는 것은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지는 마음의 이원론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상相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을 의식하거나 알거나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두 살 이하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 애들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마음에 어떤 흔적인 상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승大乘(생명력)의 본체가 크다는 의미예요. 너무도 거대해서 일체의 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본질적인 측면은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二者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이 자 상대 위 여래장구족무량성공덕고

둘째는 상대相대이니 상이 크다는 것은 여래장의 한량없는 성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체體와 상相과 용用이 있죠. 체體는 본체, 본질을 말합니다. 상相은 본질이 표현된 모습, 용用은 본질이 움직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대승의 의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본질이 크고,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이 크고, 본질의 작용이 크다, 입니다. 상相이 크다는 것은 여래장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본성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래장如來藏은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 모든 작용들 하나하나가 저장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라든가, 우리의 본성의 표현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본질의 장, 그런 것이 여래장입니다. 여래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저장한 여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성공덕性功德이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덕性功德이란 본성과 공덕功德(공을 이루는 덕)을 말하는 것으로, 여래장에 수많은 습성들과 공교함,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후덕한 결과와 효과들이 다양하게 한량없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의식의 장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 그 상相은 너무나 커서 표현하지 못할 게 없고, 드러나지 못할 게 없고, 상相을 이루지 못할 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여도 상相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생멸인연도 상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는 의식의 장, 이것이 바로 여래장입니다.

三者用大,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故.
삼자용대 능생일체세간출세간선인과고

세 번째는 용대用大로 작용이 크니,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과를 능히 생겨나게 한다.

대승大乘(생명력)은 그 본체가 크고 그 드러낸 모습이 크고 그 작용이 크다. 그래서 일체의 상대적 세계[世間]와 절대적 세계[出世間]의 착한 인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착함[善]이란 없는 거죠. 선善과 악惡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니깐요. 굳이 얘기하자면 선善은 부분보다는 전체, 작은 수보다는 많은 수,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한 행동이나 움직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개념을 통해서 분리된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나 작은 집단보다는 그것들이 구성하는 전체를 위한 인과가 바로 선善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대승의 작용입니다. 용대用大라는 것은 몸으로 보자면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이 몸짓인데, 아무리 다양한 몸짓을 해봐도 몸 자체는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질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一切諸佛本所乘故, 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藏故.
일체제불본소승고 일체보살개승차법도여래장고

일체의 여러 부처가 본래 거기에 의거하기에 일체의 보살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여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체의 부처(본질을 본 사람)가 본래 대승(생명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봅니다. 일체의 부처가 회로(回路)를 통해서,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회로 자체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로에 흐르는 전기를 발견함으로써 여래의 경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의 다양한 회로를 보고서 전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회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기의 흐름과 전기 자체를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체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로를 가라앉히거나, 천천히 흐르게 하거나, 회로 안을 무(無)로 만들어서 본질을 발견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로를 가라앉혀 작동시키지 않으면 전기도 멈추게 되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을 작용시키지 않고 회로를 멈춰서 본체인 생명력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것과 더불어 생명력도 멈춰 버리기 때문에 생명력을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삼매 상태로 들어가면 마음의 본질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편하고 고요할 수 있어요. 회로는 고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마음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가를 봐야 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자꾸 마음의 구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요. 회로를 보게 되면 회로 속에 빠지지 않아요. 회로 속을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생명력은 고요한 마음도 아니고, 평화로운 마음도 아니며, 황홀경에 빠진 마음도 아닙니다. 생명력 자체에는 고요도 시끄러움도 황홀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력일 뿐입니다. 그 생명의 힘이 어떤 회로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고요한 회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황홀한 느낌을 주는 회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드러난 모든 것들은 회로를 통한 생명력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부처는 이 생명력에 의거하여 본질을 발견하지, 결코 상대적인 고요를 통해서 본질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 평화스런 마음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적인 마음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상대적인 마음은 절대를 발견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뿐, 상대적인 마음 중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마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름 아래 날씨 중에서 가장 맑은 날씨를 찾지 말고 구름을 넘어가라는 말이지요. 날씨와 상관없는 구름 위의 세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름 위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이 구름 아래에도 있어요. 잘 보세요. 구름만 없으면 즉각 구름 위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입니까? 땅 0.00000001mm 위부터 하늘이에요. 즉 날씨의 한 가운데에 절대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절대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상대적인 마음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날씨로 가득한 이 구름 아래 바로 절대적인 하늘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사라지고 비가 멈춰야 “아, 고요해졌어. 고요한 날씨야.”라고 여기지요. 고요한 날씨가 아니라 비바람 가득한 날씨에서와 같이 절대적인 하늘일 뿐이에요. 땅 0.00000001mm 위에는 날씨와 상관없는 즉각적인 절대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늘을 기반으로 날씨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요한 날씨에 의거하지 말고, 날씨와 상관없는 하늘에 의거해서 있는 것이 부처이고, 일체의 보살들은 모두 이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여래의 경지에 이른다고 입의분은 이야기합니다.

이문일심二門一心

이문二門은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문은 하나의 마음[一心]이고, 하나의 마음[一心]은 곧 두 개의 문

〔二門〕입니다. 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근본과 현상, 보리菩提와 번뇌煩惱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번뇌에 너무 파묻혀서 죽을 것 같다면 잠시 떠날 필요가 있겠죠. 번뇌를 약화시키고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딜 만하다면 번뇌가 곧 보리임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씨가 곧 텅 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 1mm만 올라가도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 높이 구름 위만 절대적 하늘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하늘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늘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번뇌에 주의가 가있어서 하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과 글씨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낀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모두 마음의 ‘날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날씨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본바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하늘을 바탕으로 날씨가 생겨나듯 바로 본질을 바탕으로 번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심하면 그만큼 생명력도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도 크게 느끼지 않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은, 번뇌 없이는 결코 진리(본질)가 발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련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삼매상태로 들어가 보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정禪定에만 힘쓰면 바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정혜쌍수定慧雙修이지요.

믿음과 수행을 통해 깨침이 일어나는 ‘체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은 먼저 일원론一元論, 다음으로 이원론二元論, 마지막에 불이론不二論의 영역을 거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일단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측면이 전체 체계의 첫 번째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信者]은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일원론一元論의 영역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곧 부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로 나타난 지금의 모습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중생심衆生心은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대승의 본체가 곧 중생심이라는 의미예요. 중생심 안에 본질인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생멸하는 현상인 심생멸문心生滅門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고 믿으므로 그 모두가 하나라는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수행에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원론二元論의 단계이고 개념의 세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에 들어가면 육바라밀六波羅密이라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知慧를 실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도달해야 할 곳’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나와 남이 나뉘어져있고, 중생과 부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생의 단계이므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나’가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개념 세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침이 일어나면 ‘아,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이 이거였구나!’가 되지요. 깨침이라는 것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이야. 나는 깨치지 못했어!’라는 자기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

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의 감지¹⁾로써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생멸심이 곧 진여심이 됩니다. 본질^{本質}이 곧 생하고 멸하는 마음[生滅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중생과 부처가 하나 되는 일원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이론不二論으로 들어갑니다. 불이不二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이 아니지만 하나도 아닙니다. 불이不二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과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고 하지 않고 굳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것마저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고 수행을 시작하여, 부처가 되려고 애쓰다가, 깨치고 나면 ‘중생이 부처가 됐구나’가 아니라, ‘중생과 부처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론不二論입니다. 그렇게 체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애쓰를 벗어나면 중생도 부처도 하나의 개념임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수행과 깨침의 체계입니다. 중생이 노력해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 못나고 잘난 사람을 나누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누어 다르게 느끼는 세계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수많은 나눔의 세계, 분별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별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어둠[無明]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작용이 분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기

1) 감지^{感知} : ‘깨어있기’ 프로그램의 용어. ‘익숙하다’, ‘안다’는 느낌.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히어나우시스템 刊) 참고.

수행을 지나서 깨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믿는 그 자아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본적인 분별은 뭘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두세 살부터 점차 익혀서 완전히 몸과 마음속에 습꺾이 되어 버렸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개념 속에서 ‘내’가 아닌 ‘부처’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은산철벽의 막다른 벽 앞에 서는 과정에서 ‘나’와 ‘부처’라는 것이 둘 다 허구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가 사라지고 ‘세계’가 사라지게 되면 개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과 수행의 단계까지는 다들 하고 있지만, 수행을 지나서 깨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믿는 그 자아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해석分(解釋分)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했던 대승기신론 입의分(立義分)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승(大乘)은 일종의 생명력, 근본, 본질 등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인 측면의 보살이 되어서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강 이쪽(개념의 세계)에서 강 저쪽(개념을 떠난 본질적인 세계)으로 많은 사람을 실어 보낸다는 의미에서 대승입니다. 클 대(大)자, 탈 승(乘)자. 많이 태워서 건너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본질을 발견한

다는 것입니다.

대승은 법法과 의義로 나눕니다. 법法은 현상과 본질을 다 포함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법은 중생심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생심은 단순히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본질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대승과 소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승이 말하는 중생심은 진여심과 생멸심을 다 포함해요. 중생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은 세간법世間法, 즉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간의 현상들과, 생멸을 떠난 출세간出世間的 현상들, 즉 본질을 다 포함합니다. 중생심의 진여상(본질적인 측면의 상)이 대승의 체體라고 했습니다. 이 체體은 본체를 말합니다. 중생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진여상眞如相, 나머지 하나는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 진여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相이라고 했어요. 진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마음이 잡아낼 수 있도록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相이에요. 그것이 대승의 체體입니다. 중생심의 생멸인연상(생멸인연적인 모습)이 대승의 상相(꼴)과 용用(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물로 비유하자면, 본질은 물 자체고, 생각, 감정, 느낌 등 모든 마음의 현상들은 상相이나 용用に 해당합니다.

대승의 의義, 올바른 뜻을 보면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라고 했어요. 체대體大는 본체가 크다, 그 의미는 일체의 법은 크다, 일체의 현상은 다 진여라는 말입니다. 일체의 현상은 본질과 다르지 않다, 일체의 현상은 진여로서 평등하고 증감이 없다, 바닷물은 한 치도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구름이 돼서 비가 되어 내리고 땅으로 스며들어 다시 바다로 돌아오지만 그 전체는 평등하며 결코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체대라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봤을 때 몸 자체를 말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체입니다. 몸으로 따지면 몸, 물로 따지면 증감이 없는 물 자체예요.

상이라는 것은 모습, 꼴이에요. 상이 크다[相大]고 하는 것은 여래장이라고 하는데, 여래장은 생각, 감정, 느낌 등의 우리 모든 현상 속에 여래가 저장되어 있다는 뜻에서 여래장이라고 합니다. 여래는 본질적인 측면이죠. 생각과 감정과 느낌, 여기에 다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나타난 모습[相]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라는 거죠. 물의 모양 즉 다양한 파도의 모양, 그 다양한 파도의 모양은 한량없고 무한하고 무량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용대用大라는 것은 작용이 아주 커서 일체의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因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자면 몸짓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면서 몸짓을 하죠. 몸짓을 아무리 해도 몸에는 변화가 없지 않아요? 몸짓을 아무리 해도 내 몸과 체體에는 변화가 없죠.

그와 같이 물이 아무리 많은 작용을 해도 본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화난 상태, 기쁜 상태, 슬프고 외로운 상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상대相對 속에 절대絕對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절대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물의 커다란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아무리 큰 파도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물 자체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모습이나 물의 작용에 너무 습관적으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물의 모습이나 작용이 어떠한에 따라 그것에 자기를 동일시해


서 살아왔기 때문에 물의 모습을 자기라고 알고 있지 물 자체를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슬프면 그것은 슬픈 ‘마음’이죠, 그러나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마음’이죠. 지루할 때는 지루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본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마음’ 아니에요? 슬픈 ‘마음’이죠. 파도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또 슬픈 파도는 물이 ‘저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모양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 자체를 발견해야지, 물의 모양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물의 모양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고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용대용大, 작용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몸짓이 아무리 한껏 변해도 몸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과 같아요. 물의 작용, 파도침 이런 것이 다 용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파도는 수많은 작용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용대용大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입의분에서 말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여상과 생멸인 연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지, 진여상만을 발견해야 한다거나,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태어나고 죽는 마음, 변화가 일어나는 마음이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물은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물은 끊임없이 파도치고 그 모양이 변합니다. 그렇게 그 모양과 작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지만 물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슬픈 파도가 일어나요. 분노의 파도가 일죠. 그런데 분노의 파도가 일면, 이것을 느낌이라고 알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라고 믿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자기라고 믿는가 하면 믿음의 에너지가 들러붙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절 수업²⁾에서 해왔던 작업이 이 믿음에 대한 것이었지요. 파도는 수많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작용 속에 빠져들지 않고, 모양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자체는 뭐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고요할 때나 파도칠 때나 변함없는 무엇을 발견하려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다란 감정 속에 있을 때나 아주 고요한 평화의 마음속에 있을 때도 아무런 변화도 차이도 없는 것 즉, 분노를 가라앉혀서 평화로 가려 하지 말고, 분노의 마음이나 평화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것이 물이거든요. 분노나 평화는 그냥 파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파도, 저런 파도인 거죠. 마음의 이런 저런 모습이에요. 그럼 마음 자체는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물은 빨간 물감에 물들고, 파란 물감에 물들고, 노란 물감에 물들죠. 물을 잘 보세요. 물이 빨간 물감에 물들었다 해도 그 물이 어디 간 건 아니지요. 빨간색을 자기라고 알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모두 느낌이다. 모든 것은 현상일 뿐이야. 내 마음과 몸에 느껴지는 모든 느낌은 일종의 왔다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를 알아채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지요. 물들지 않으려고 모든 물감을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물드는

2) 계절수업 : 깨어있기™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3개월에 한번씩 모여 후속 작업을 해온 것을 말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 속에 있으면서도 물은 물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진 비유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석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강의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 ‘대승기신론’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 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不二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의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